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행사 종료 후 보도(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4년 1월 3일(수)

윤석열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 대통령,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 참석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 참석 -
-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 격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습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있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끝>

행사 개요

- 일 시 : '24.1.3.(수) 10:30 ~ 11:10 (40분)
- 장 소 : 청와대 영빈관 2층
- 참석자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처장·청장, 주요 군 지휘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
 - 국회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사무총장 등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 주요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 국민대표 3인
 - ① 국지성(고등학생, 17세): 급발진 확인장치 발명,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대통령
 - ② 이원정(간호사, 32세): 여의도에서 의식 잃은 60대 남성 응급처치 구조('23.11.)
 - ③ 강태권(육군대위, 33세): 합정역 내 쓰러진 40대 남성 심폐소생술 구조('23.11.)